

勞動의 分化에 關한 生態學的 分析

金 漢 坤

(嶺南大學校)

〈目 次〉	
I. 緒 言	IV. 調查結果
II. 文獻研究	V. 結 言
III. 研究方法과 資料	

I. 緒 言

勞動의 分化 現狀에 關한 관심과 그 重要性은 社會科學者들에게 있어서 疑問의 餘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間生態學的 界 영역에 있어서 현저한 差異가 존재하는 分野 또한 勞動의 分化에 關한 研究라 할 수 있겠다. Adam Smith와 Emile Durkheim이 그들의 古典의 論文에서 勞動의 分化에 關한 主題를 도입한 以來 勞動의 分化에 對한 概念 自體에 關한 論理的인 面에서는 相對的으로 광범위한 關心이 기울여져 왔었지만 經驗的 研究를 위한 개념의 操作化 作業에 對한 試圖는 매우 드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勞動의 分化를 經驗的으로 測定하거나 概念化하는데 진진이 매우 더딘 主된 理由中의 하나는 노동의 분화에 關한 初期의 研究가 調查研究와 理論이 併存할 수 있는 傳統을 수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Gibbs & Poston, 1975).

그러나 1960年 이후에 國內 혹은 國家間的 勞動의 分化를 측정하기 위한 連의 研究들이 시도되었다(Gibbs & Martin, 1962; Labovitz & Gibbs, 1964; Gibbs & Browning, 1971). 그 가운데 특히 Clemente와 Sturgis(1971, 1972)는 1萬名 이상의 人口가 거주하는 美國의 都市中에서 600個의 標本을 뽑아 연구함으로써 勞動의 分化에 關한 研究를 한층 더 發展시켰다.

한 國家內에 있어서 勞動의 分化는 전반적으로 多樣할 뿐만 아니라 같은 國家內의 產業間에 있어

서나 地域間에 있어서도 매우 多樣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韓國의 都市間에 있어서 勞動의 分化 狀態를 測定하는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本 研究는 Clemente와 Sturgis의 研究方法(1972)을 적용하여 韓國의 都市들 間에 있어서 勞動의 分化를 연구하고자 한다. 즉, Durkheim(1933)에 의해 提示되고 人間生態學者들에 의해 끊임없이 채택된 概念들에서 派生된 連의 假說들을 檢定함으로써 좀 더 經驗에 기초를 둔 勞動의 分化 理論을 發展시키려는 시도이다.

Durkheim과 같은 학자들의 勞動의 分化에 關한 理論的 研究에 經驗的인 뒷받침을 추구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Land, 1970; Merton, 1934). 또한 Durkheim의 勞動의 分化에 對한 說明이 너무나 一般的이고 抽象的이기 때문에 그것이 內包하는 모든 함축된 意味에 관심을 갖고 注意를 기울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것은 보다 一般的인 面으로 부터 理論的인 一貫性을 도출하여 그것을 經驗的으로 檢定하는 일이다.

各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社會·經濟的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都市들 間에 존재하는 勞動의 分化 程度는 국가와 국가에 따라 매우 多樣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本 研究의 目的은 첫째, 都市들 間에 있어서의 勞動의 分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을 밝혀 봄으로써 理論的 概念을 經驗的으로 糾明해 보고자 하며, 둘째는 社會·經濟的 條件이 서로 다른 先進社會의 勞動의 分化 結果를 韓國의 都市間的 노동의 분화와 比較 分析

하고자 하며, 끝으로 1962年 이후 급속한 經濟成長과 都市化를 경험한 韓國에 있어서의 都市들 間의 勞動의 分化 程度와 差異를 밝혀 보고자 하는데 있다.

II. 文獻研究

勞動의 分化가 발달하는데 기여하는 要因들을 糾明하는 작업이 많은 學者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지만 오늘날 가장 普遍的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것은 Durkheim에 의해 1893년에 발표된 "Division of Labor in Society"라고 할 수 있다.

Durkheim은 본래 복잡한 社會에 있어서 社會의 凝集力의 본질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勞動의 分化 현상을 사회적 응집력의 發達에 기여하는 核心要因으로 看做하였다. Durkheim은 勞動의 分化論에서 기능적인 異質性을 物理的 社會的 密集度の 增加 결과로 보고 있다. 즉, 人口規模와 社會的 相互作用이 증가함에 따라 生存을 위한 투쟁은 尖銳化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결과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競爭力이 강화됨으로써 그 解決策의 한 方便으로 勞動의 分化가 발달하게끔 자극되어진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機能的인 分化의 增加와 더불어 生存에 필요한 資源의 供給에 관계되는 需要의 同質性이 減少됨으로서 그 尖銳한 경쟁에서 생겨나는 問題가 다소 緩化되기 때문이다(Lampard, 1955).

Durkheim은 勞動의 分化가 향상되는 條件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지만 그와 관련하여 간결하면서도 概念的으로 명확한 定義를 그는 결코 提示하지 못하였다. Frisbie와 Poston(1978)에 의하면 Durkheim이 勞動의 分化라는 概念을 사용했을 때 그 개념은 總體的인 것이었으며, 한 社會에 있어서의 機能的인 分化 정도를 의미하여 또한 交換을 통하여 根本적으로 생겨난 生存과 관계되는 機能들에 관한 相互依存性의 복잡한 體系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Durkheim은 分業이 勞動의 分化가 출현하기 위한 必要條件이지 充分條件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分業, 組織 그리고 相互依存이 함께 發生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ibbs와 Poston(1975)은 勞動

의 分化를 生存活動 상에 있어서 사람들 間의 分業과 分業에 관련되는 機能的인 相互依存性으로 定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生態學者들은 社會間 혹은 社會內的 작은 都市들 사이에 있어서 勞動의 分化를 결정하는 要因들과 노동의 分化 결과를 糾明하기 위해서 상당한 時間과 정열을 쏟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Hawley(1950)는 地域共同體의 構造가 形成되는데 수반되는 네가지 一般的인 段階들을 제시하였다. 그 段階들은 첫째, 生存을 위해서 필요한 需要가 供給을 超越하는 단계, 둘째, 競爭者들 사이의 同質性의 정도가 增加하는 단계, 셋째, 競爭力이 없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단계, 넷째, 分業化되고 機能들이 多樣해지면서 組織이 出現하는 단계 등이다.

이와같은 Hawley의 주장은 勞動의 分化에 관해서 Durkheim이 제시한 主要 前提들 중의 하나에 根據를 두고 있다. 즉, "勞動의 分化는 더 많은 個人들이 접촉하고 서로서로 相互作用 하므로서 發展하며, 勞動의 分化는 力學的 密集도에 正比例하며, 社會發展過程에서 勞動의 分化가 끊임없이 增進한다면 그것은 社會가 보다 더 密集되고 커지기 때문이다(Durkheim, 1933:262). Gibbs와 Martin(1962)이 45個 國家를 對象으로 실시한 그들의 研究에서 都市化, 勞動의 分化, 技術發達 정도, 消費對象物의 分散度 사이에 一貫性 있는 關係들이 있음을 밝혀냈다. 나아가서 Browning과 Gibbs(1971)는 멕시코에 관한 研究에서 여덟개의 産業分野 중에서 각각의 職業分化 정도가 멕시코의 洲(State)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Durkheim이 研究했던 勞動의 分化에 관한 變數들은 生態學者들(Hawley, 1950; Park, 1936)이 사용하고 있는 變數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Durkheim은 勞動의 分化의 발달을 論議하면서 人口規模, 物理的 密集度, 社會的 密集度 등의 세가지 주요 決定因子들을 제시하였다(1933). 그후 그는 時間이라는 네번째 要因을 進化論的 觀點에서 勞動의 分化 발달의 決定要因으로 첨가시켰다.

그러한 네가지 變數들이 勞動의 分化 발달을 위한 研究에서 빈번히 論議되어 왔지만(Mckenzie, 1933; Stigler, 1951; Thompson, 1965). 그와같은 變

數들이 經驗적으로 妥當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 또한 事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學者들(Ke-yes, 1958;Marden, 1966;Rogers, 1957)은 人口規模와 勞動의 分化를 測定하는 方法중의 하나인 相異한 産業分野들 사이에 正比例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내었으며, Clemente와 Sturgis(1971)는 美國의 都市人口 規模와 産業의 分化度 사이에 어느 정도의 正比例 관계가 있으며, 또한 社會密集도와 産業의 分化 사이에는 有意味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1972).

일반적으로 勞動의 分化가 典型的으로 西歐社會와 관련하여 定義되고 適用되어 온 것 또한 事實이다. 그러므로 韓國社會에 있어서 地域共同體의 生成과 그 發達이 西歐社會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勞動의 分化에 관한 研究結果가 지금까지 서구사회에서 밝혀진 연구결과와 相異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東洋社會의 勞動의 分化에 대한 經驗的 研究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韓國社會의 勞動의 分化를 좀 더 명확히 理解하려 한다면 지난 約 30년에 걸쳐 政府 主導속에 급속한 産業化와 經濟成長을 겪은 韓國社會가 西歐社會와 다른 點들이 研究되어야만 할 것이다.

Ⅲ. 研究方法과 資料

本 研究를 위하여 韓國都市年鑑에 수록된 1985年 현재 人口 50,000名 이상의 都市 61個 가운데 資料가 불성실한 5個 都市를 제외한 56個 標本 都市에 관한 資料가 사용되었다. 都市가 본 연구의 分析單位로 쓰였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Gibbs와 Marti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都市는 生存을 위해서 生成된 組織體이므로 都市 自體 內에서의 勞動의 分化를 分析하는데 論理的으로 합당한 單位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둘째, 한 都市 內에서 生存을 위한 뚜렷한 活動을 하는 組織體가 서로서로 機能의 分化를 하고 있는 點이다(Browing과 Gibbs, 1971). 셋째, 勞動의 分化와 관련하여 Durkheim에 의해 제시된 地域共同體가 都市의 勞動의 分化에 영향을 주는 變數들을 解釋하는 것이 生態學者들(Hawley, 1950;Schmore, 1965)의 관습이 되어 왔으며, 都市地域에 관한 센서스의 定義가 地域共同體의 生態學的 개념과는 일치하

지 않는다는 點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勞動의 分化를 經驗적으로 研究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分析單位의 하나로 看做되어 왔기 때문이다.

操作的 定義 :

1. 從屬變數

本 研究에서 勞動의 分化를 測定하기 위해서 國家間의 産業分化를 측정하는데 도입된 Gibbs와 Martin(1962)의 産業間의 多樣化 尺度(Measurement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가 이용되었다. 이들이 도입한 勞動의 分化에 관한 測定方法은 어떠한 集合體에 동일한 數 만큼의 産業活動이 존재하고 있을 때 産業들 사이에 있어서 균형있는 分配가 이루어질수록 勞動의 分化는 클 것이라는 假定을 함축하고 있다(Labovitz와 Gibbs, 1964;Clemente, 1972). 産業分化를 測定하는데 사용된 公式는 다음과 같다.

$$MID=1-\frac{\sum X_i^2}{(\sum X_i)^2}$$

여기에서 X_i 는 각각 産業에 從事하는 사람의 數를 나타낸다.

2. 獨立變數

네개의 獨立變數들이 産業多樣化 정도를 決定하는 要因으로 回歸分析모델에 도입되었으며, 獨立變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人口規模: 各 都市의 常住人口 數
- ② 物理的 密集度: 1km² 當 人口密度
- ③ 社會密集度: 全體 産業 從事者 數에 대한 交通과 通信 關聯業에 從事하는 사람의 構成比

社會密集도에 관한 操作化는 Durkheim(1933)의 研究論文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Hawley(1950:196-200)에 의하면 交通과 通信業의 從事者數와 增加速度는 社會的 密集度的 經驗的 資料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

- ④ 都市年齡: 都市가 人口 50,000名에 도달하여 行政事務上 都市로 指定된 一連 順位

3. 假說

앞의 文獻研究에서 논의된 內容을 바탕으로 調査 假說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假說 1 : 都市의 人口規模와 MID 사이에는 正比例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② 假說 2 : 物理的 密集도와 MID 사이에는 正比例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③ 假說 3 : 社會的 密集도와 MID 사이에는 正比例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④ 假說 4 : 都市年齡과 MID 사이에는 正比例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4. 統計分析 節次

Zero-order 相關係數가 利用되었으며, 假說들을 檢定하고 다른 獨立變數들의 영향력이 배제된 각 獨立變數들이 MID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고 獨立變數들 間의 相對的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非標準化 回歸係數와 標準化 回歸係數가 도입되었다.

IV. 調查結果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產業間의 分化指數(MID)는 最低 0.071(창원시)에서 最高 0.992(안산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政府에 의해 計劃的이고 人爲的으로 발달된 都市와 新設된 產業基地 중심의 都市들(성남, 부천, 구미, 창원, 울산, 김해)이 매우 낮은 水準의 勞動의 分化程度를 나타내고 있으며(0.4이하), 이들 都市들의 產業體 從業者들의 百分率을 살펴보면 대부분 80퍼센트 이상의 勞動力이 製造業에 從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0.8 이상의 높은 勞動의 分化를 나타내는 都市들은 歷史가 相對的으로 깊은 도시이며, 0.9 이상의 높은 勞動의 分化指數를 보이는 都市는 안산시, 정주시, 속초시, 삼천포시 등이다.

假說檢定 :

假說 1은 都市人口 規模와 MID 사이에는 正比例 관계가 存在하리라고 예측했었다. 表2의 Zero-

Table 1. Measure of the Division of Labor among Industries, 1985

CITY	MID**	CITY	MID
Seoul	0.790	Iri	0.507
Pusan	0.522	Jungju	0.734
Taegu	0.571	Namwon	0.750
Incheon	0.356	Gwangju	0.813
Suwon	0.509	Mokpo	0.767
Sungnam	0.319	Yeosu	0.799
Uijeongbu	0.655	Suncheon	0.748
Ahnyang	0.485	Naju	0.754
Bucheon	0.194	Yuicheon	0.556
Gwangmyong	0.644	Pohang	0.693
Songtan	0.594	Gyeongju	0.902
Dongducheon	0.612	Kimcheon	0.675
Ahnsan	0.992	Ahndong	0.822
Gacheon	0.746	Gumi	0.159
Chuncheon	0.811	Youngju	0.851
Wonju	0.745	Youngcheon	0.633
Gangrung	0.795	Sangju	0.776
Donghae	0.750	Jumcheon	0.575
Taebaek	0.215	Changwon	0.071
Sokcho	0.809	Ulsan	0.377
Samchuck	0.938	Masan	0.489
Cheongju	0.553	Jinju	0.685
Jecheon	0.840	Jinhae	0.633
Chungju	0.826	Chungmu	0.641
Taejeon	0.663	Samcheonpo	0.905
Cheonan	0.583	Kimhae	0.272
Jeonju	0.762	Jeju	0.813
Gunsan	0.752	Seongypoo	0.820

**MID: Measurement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MID = 1 - \Sigma(X)^2 / (\Sigma X)^2$

order 相關係數는 logarithmic 都市人口 規模와 MID 사이에 反比例의 관계(-0.2437)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3에서 다른 獨立變數들의 영향력이 배제된 標準化된 回歸係數(β) 역시 都市人口 規模와 MID 사이에 反比例 관계(-0.4584)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調査結果는 假說 1과 相反되며, Clemente와 Sturgis(1972)가 美國의 中小都市들을 대상으로 발견한 無意味한 關係와도 差異가 난다. 本 研究에서 假說 1은 支持를 받지 못하였다.

假說 2는 都市 人口密集도와 MID 사이에 正比例 關係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表2의 Zero-order 相關係數는 都市 人口密集도와 MID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表3의 標準化 回歸係數 역시 두 變數 사이에는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 역시 美國의 都市들에 있어서 都市 人口密集도와 MID 사이에 反比例 關係가 있다고 밝힌 Clemente와 Sturgis(1972)의 研究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假說 2 역시 本 研究에서 支持를 얻지 못하였다.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s(r)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MID for 56 Korean Cities, 1985

	XPOP	Phyden	Socden	Age	M.I.D	XPOP	Phyden	Socden
XPOP	-0.2437*							
Phyden	-0.1673	0.8359***						
Socden	-0.5720***	-0.2186*	-0.2129					
Age	0.1317	0.5900***	0.4610***	0.0945				

* P<0.05 ; *** P<0.001

假說 3은 社會密集도와 MID 사이에 正比例 關係를 假定하였다. 表2의 Zero-order 相關係數는 都市의 社會密集도와 MID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正比例 關係(0.5720)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表3의 標準化된 回歸係數(0.4889) 역시 두 變數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正比例 關係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Clemente와 Sturgis(1972)의 研究결과와 一致하며, 假說 3은 本 研究결과 支持를 받았다.

假說 4는 都市年齡과 MID 사이에 正比例의 關係를 假定하였다. 表2의 Zero-order 相關係數는 두 變數 사이에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表3의 다른 獨立變數들의 影響력을 배제한 標準化 回歸係數는 都市年齡과 MID 사이에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正比例 關係(0.2647)가 있음

Table 3.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Independent Variables and MID for 56 Cities, 1985

Variable	B	β
Socden	0.0100*** (0.0024)	0.4889***
Xpop	-0.0854** (0.0416)	-0.4584**
Age	0.0037* (0.0020)	0.2647*
Phyden	0.0000149 (0.00001)	0.1980
	R ² :0.3931	
	Adjusted R ² :0.3455	

* P<0.05 ; ** P<0.01 ; *** P<0.001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Clemente와 Sturgis의 研究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假說 4는 本 研究에서 支持를 받았다.

本 研究결과 假說 3과 4 즉, 韓國의 都市에 있어서 社會密集도와 都市年齡이 MID와는 正比例의 關係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假說 1 즉, 都市 人口規模와 MID 사이에는 假說과는 正反對의 反比例 關係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假說 2 즉, 都市의 物理的 密集도와 MID 사이에는 有意味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3에서 MID에 관한 獨立變數들의 相對的인 크기를 살펴보면, 社會的 密集度(0.4889)가 가장 影響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人口規模(-0.4584), 年齡(0.2647)의 順序이며, Adjusted R² 값으로 미루어 보아 네가지 獨立變數들이 MID의 34.6퍼센트의 說明力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結 言

1962年 이래 經驗한 급격한 經濟發展의 結果로 생겨난 급속한 都市化 현상은 韓國의 都市構造와 特性을 변화시켰다. 즉, 1960년에 전체 人口의 30 퍼센트만이 都市地域에 居住한 반면 1985년에는 전체 人口의 65.4퍼센트가 都市에 居住하고 있다. 25年 남짓한 期間 동안에 그와 같은 급속한 都市

化 현상은 부수적으로 住宅問題, 交通問題 그리고 都市貧民層의 增加와 같은 社會經濟的 問題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이와 같은 特徵을 가진 韓國의 都市들을 대상으로 勞動의 分化 程度를 生態學的 側面에서 經驗的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즉, 勞動의 分化에 관한 Durkheim의 理論을 바탕으로 勞動의 分化 發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要因들로서 人口規模, 物理的 密度, 社會的 密度, 進化論的 意味의 都市年齡을 도입하여 産業의 多樣化 정도와의 관계를 Zero-order 相關係數 分析과 回歸 分析을 이용하여 假說檢定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社會密度와 勞動의 分化 사이에는 正比例 關係가 있으며, 都市年齡과 勞動의 分化 사이에도 正比例 關係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人口規模와 物理的 密度, 그리고 勞動의 分化 사이의 假說은 본 연구에서 支持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가지 論議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假說 1의 檢定結果 人口規模와 産業分化 사이에 反比例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같은 結果의 理由를 몇가지 들어 보면 첫째, 大都市 地域은 技術이 高度化 되어 있으므로 大도시의 周邊 都市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地域共同體 間的 실질적인 勞動의 分化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都市들 間的 機能的인 相互依存度가 증가하므로써 특정 지역사회내의 産業의 多樣性을 감소시키는 結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都市內의 産業構造는 전체社會의 構造의 인面에서 점유하고 있는 位置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Galle, 1963).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資料가 순수한 生態學的 意味의 地域共同體에서 얻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行政的인 차원에 根據를 둔 것이기 때문에 MID값이 실제 生態學的 地域共同體의 MID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人口規模가 어느정도 水準에 다다를 때까지는 Durkheim이 주장한 바와 같이 勞動의 分化가 발달하지만 人口規模가 어느 水準을 넘게되면 他地域과의 相互依存的作用에 의해 勞動의 分化가 감소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假說 2 역시 본 조사연구에서 支持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 理由는 아마도 物理的 密度를 측정

하기 위해 쓰여진 資料가 실제의 生態的인 面보다는 行政區域上의 面積에 대한 人口規模로 나타낸 것이 그 부분적인 理由가 될 수 있다.

假說 3은 본 연구결과 支持를 받았다. 즉, 社會密度와 産業分化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正比例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Durkheim이 제시한 勞動의 分化 概念을 설명하는데 핵심적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社會的 密度의 概念을 經驗的으로 支持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를 解釋하는데 注意가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社會密度란 概念 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社會密度를 測定하기 위해서 쓰여진 資料가 交通과 通信 分野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資料가 한 都市內에서 限定되느냐 아니면 都市間에 걸쳐 종사하는 사람이냐 하는 問題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社會密度를 측정하는 資料로 쓰인 것이 주로 버스, 택시 등과 같은 都市內에서의 交通分野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問題는 큰 爭點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都市에 있어서 效率적이고 能率的인 交通과 通信體系가 勞動의 分化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假說 4 즉, 都市年齡과 産業分化 사이에는 正比例 關係가 있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 支持를 받았다. 본 연구의 結果와 Durkheim이 進化論에 바탕을 두고 勞動의 分化 發達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 제시한 時間的 意味의 都市年齡은 韓國의 都市에 있어서 産業의 分化와 正比例의 關係가 있음이 經驗的인 資料로 확인되었다.

美國의 中小都市를 대상으로 실시한 Clemente와 Sturgis(1972)의 연구결과를 都市의 人口規模와 MID 사이 그리고 都市年齡과 MID 사이에는 무의미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研究結果 사이에 差異가 있는 點들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類推해 볼 수 있다. 韓國의 경우 都市 人口規模와 産業分化 사이에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反比例 關係를 보인 反面, 美國의 경우 통계적으로 無意味한 關係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規模가 一定 水準 이상으로 肥大해지면 産業分化 상태가

減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要因은 상대적으로 韓國의 경우 都市와 都市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都市間의 相互作用의 결과와 無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美國의 경우 都市年齡이 産業分化和 無意味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나, 韓國의 경우에는 有意味한 正比例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勞動의 分化는 環境的, 社會的, 經濟的 與件에 따라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가지 限界點과 앞으로 勞動의 分化에 관한 經驗的 研究를 위한 提言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勞動의 分化는 概念의 操作化에 있어서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그 개념 자체가 매우 複雜하다는 것이다. 사실 Browning과 Gibbs(1977)에 의하면 勞動의 分化는 순수한 理論的 概念이므로 직접적으로 測定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點이다. 다음, 資料의 限界性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勞動의 分化를 測定하기 위하여 産業分化的 尺度가 이용된다는 點이다. 즉, 勞動의 分化를 측정하기 위해서 産業分化的 尺度를 이용한 것은 職業分化的 尺度를 이용하는 것보다 相對的으로 덜 正確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홉개의 産業範疇들로 측정된 勞動의 分化는 각 産業內의 下位領域들이 묶여졌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限界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勞動의 分化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MID가 본래 Gibbs와 Martin(1962)이 國家間의 勞動의 分化를 측정하기 위해 考案한 것이므로 본 연구와 같이 都市間의 勞動의 分化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경우 都市間의 相互作用이 國家間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빈번하고 크다는 點이 限界點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分野에 관한 장래의 研究를 위해서 勞動의 分化를 더 精確하게 經驗的으로 측정할 수 있는 測定方法의 考案이 요청되며, 分析單位를 都市가 아닌 單位를 이용한 勞動의 分化를 研究해 보는 것도 試圖해 볼만하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第1卷, 1980
- _____,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第1卷, 1985.
- 內務部, 韓國都市年鑑, 1986
- Clemente, Frank and Sturgis, Richard B., "Population Size and Industrial Diversification", *Urban Studies*, February, 1971:65-68
- _____, "The Division of Labor in America: An Ecological Analysis", *Social Forces*, Dec., 1972:176-182
-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Macmillan, 1933
- Frisbie, Parker and Dudley Poston, "Sustenance Differentiation and Nonmetropolitan Population Redistribution", *Social Forces*, Vol.57:Sept., 1978:42-56
- Gibbs, Jack P. and Martin, W.T., "Urbanization, Technology and Division of Lab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October, 1962:667-677
- Gibbs, Jack P. and Harley L. Browning, "Intraindustry Division of Labor: The States of Mexico", *Demography*, Vol.8, No.2, May, 1971:233-246
- Gibbs, Jack P. and Dudley Poston Jr., "The Division of Labor: Conceptualization and Related Measures", *Social Forces*, March, 1975:468-476.
- Hawley, Amos, *Human Ecology*, New York: Ronald, 1950
- Keyes, F., "The Correlation of Social Phenomena with City Size", *Social Forces*, 25(May), 1958:182-191
- Labovitz, S. and J. Gibbs, "Technology and Division of Labor", *Pacific Sociological Review*, 7(Spring), 1964:3-9
- Lampard, E., "The History of Cities in Economically Advanced A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January), 1955:86-136
- Land, K.C., "Mathematical Formalization of Durheim's Theory of the Division of Labor",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1970
- Marden, P., "A Demographic and Ecological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Physicians in Metropolitan America, 196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9(November), 1966:290-300.
- Mckenzie, Roderick D., *The Metropolitan Community*, New York: McGraw-Hill, 1933
- Merton, R., "Durkheim's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0(January), 1934: 319-328
- Park, R., "Human Ec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2(July), 1936:1-15
- Rogers, A., "Some Aspects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e U.S.", *Economic Geography*, 33(January), 1957:16-30
- Schnore, L., "Social Morphology and Human Ec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3(May), 1958: 620-634

〈Abstract〉

The Division of Labor in Korean Cities, 1985 : An Ecological Analysis

Kim, Han Kon
(Yo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plication of Clemente and Sturgis' study conducted among 600 American cities in 1972. The impact of population size, physical density, social density, and age of 56 Korean cities upon the extent of their industrial diversification was analyzed. Hypotheses concerning each independent variable were generated from the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division of labor proposed by Durkheim and subsequently adopted by human ecologists. Zero-order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standardized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s indicated that social density and age of cities exert significant positive impact up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On the other hand, population siz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up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addi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combined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ccount for 34.6 percent of the variation in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Clemente and Sturgis' study.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and discussed.